

# 20세기 후반 패션에 나타난 미니멀 아트(Minimal Art)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조교수 이효진

## 目 次

I. 서 론	IV. 1990년대 패션과 미니멀 아트의 조형성
II. 미니멀 아트의 개념 및 특성	V. 결 론
1. 미니멀 아트의 배경 및 개념	참고문헌
2. 미니멀 아트 작가의 작품에 나타난 특성	ABSTRACT
III. 1960년대 패션과 미니멀 아트	

## I. 서 론

다가오는 21세기의 현대인은 어떠한 정신세계를 가지고 문명사회를 채색할 것인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화해 가는 자본주의 사회속에 살면서 현대인들은 자아라는 주체를 가지고 살 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대화된 물질문명 사회속에서 종속된 위치로써 존재할 뿐이다.

이렇게 대중화, 획일화된 문화속에서 수동적으로 형성되어 가는 인간의 삶에서 주체를 찾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님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 21세기를 향해 서 있는 우리 현대인의 모습이다.

따라서 현대인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갈등들, 즉 치솟는 물가에 대한 불안감, 환경오염,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등으로 인하여 그러한 문제점들이 형체를 가진 모습으로든 형체를 갖지 않은 모습으로든 표출이 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 인간 생활과 밀착되어 있는 조형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현대인의 내적 갈등은 어떠한 형태로든 표현이 되고 있다. 육체적인 보호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보호까지도 갈망하며 독립적인 개체로써 인정받기를 원하는 현대인의 모습은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패션 디자인의 경우 20세기 후반에서는 과거의 예술적 조형성을 부활시켜 현대적인 감각으로 표출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후반의 패션 디자인 경향은 1960년대의 영향을 받아 기본적인 단순함과 모던한 스타일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와 같은 경향은 60년대 스타일의 더블버튼 코트라든가, 바이어스 컷팅 원피스와 셔츠 드레스 등이 유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색상에 있어서도 블랙 & 화이트의 코디네이션이 강세를 이룰 것으로 보고 있다.<sup>1)</sup>

소재의 경우도 현대 패션 디자인에서는 새로운 디자인 요소로 작용함으로써 소재는 단지 옷을 만

1) Fashion Today 1995년 12월

들기 위한 재료만이 아니라 유행의 흐름을 이끌어 나가는데 한 몫을 하게 된 것이다.

즉 소재는 보다 다채로워지고 디자인의 영감을 불러 일으키는 요소로 되고 있으며, 건축물이나 일상용품 등의 정형화된 것들에서도 디자인의 영감을 얻어내고 있는 것이 20세기 후반의 패션 디자인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많은 조형예술에서처럼 패션 디자인도 역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에서 각각의 이미지를 끌어내어 새로운 이미지로 재창조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패션 디자인에서 1960년대 이미지중 미니멀 아트의 조형성이 90년대식으로 재현이 되어 새로운 패션으로 탄생되고 있는 조형적 측면을 고찰·분석함으로써 한시대의 미의식과 시대정신을 반영하여 다양한 양식으로 표현되는 의상은 예술적 조형과 서로 분리될 없는 조형매체임을 예술양식과 함께 조명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이미 미니멀 아트의 조형성이 20세기 이후 뚜렷한 패션의 테마로써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제시해 주고 있는 선행연구<sup>2)</sup> 및 미니멀 아트에 대한 연구<sup>3)4)</sup>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속에서 본 연구는 현대인의 모습의 한 부분이 표현되고 있는 의상에서의 미니멀 아트의 내면성을 재인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가진다.

연구방법은 동·서양의 문헌 및 패션잡지, 그리고 선행연구 등을 이용하였으며,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문헌중심의 연구가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연구범위는 수많은 조형매체 중 의상에만 한정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다른 예술분야와

연계하여 폭넓은 연구의 진행이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 II. 미니멀 아트의 개념 및 특성

### 1. 미니멀 아트의 배경 및 개념

미술에 있어서 제2차 세계대전은 유럽 미술에 파멸적인 타격을 주어 戰後 미술의 중심이 미국의 뉴욕으로 옮겨지게끔 하는 계기가 되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진원지인 미국이 여러가지 사회 문제로 시달리게 되었는데, 그것은 자연파괴에 의한 공해문제와 인종문제, 학원분쟁, 여성해방, 베트남 전쟁이었다.<sup>5)</sup> 이렇게 미국사회에 병폐가 보이기 시작했던 것은 미국만의 특수사정만은 아니었지만 미국에서 특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졌다.

현대 미술 작가들도 그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각각의 의견을 가지게 되었던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다. 또한 그러한 의견의 차이가 각 작가의 작품에 표현되어 온 것이 당연하였으며, 미래에 대한 불안은 다양한 해답을 끌어내오는 단서가 됨으로써 현대 미술은 활발히 갈라져 나갔다.

그러한 가운데 미술세계에 있어서 1960년대는 많은 표현 모델을 함축시켰던 시대였으며, 그런 만큼 그 시대는 수많은 이질적 사고로 가득차게 되었던 시대였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60년대 작가들은 사회적인 운동에 완전히 동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각자가 생각하는 未來像을 작품 속에 함축시키려고 했던 것이다. 당시의 비틀즈(Beatles), 롤링스톤즈(Rollingstones) 등의 음악가들이 현재의 불안에 적극적으로 답하고 했던 것에 대해서 현대 미술은 예언자품의 태

2) 김은덕, 현대패션에 나타난 최소표현기법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95.

3) 김창규, 조각에 있어 Minimalism연구, 홍대 석사논문, 1986.

4) 하민수, 미니멀리즘의 의미와 그 특성에 관한 연구, 홍대 석사논문, 1986.

5) 若林直樹, 現代美術·入門, JICC出版, 1993, p.143.

도로 대중에게 접근해 가려고 했던 것이다.<sup>6)</sup>

이러한 60년대 특유의 낙관주의에 지탱되어 물체 자체의 최소단위와 기원, 본질이라는 것을 추구하려고 했던 경향이 미니멀 아트(Minimal Art)였다.<sup>7)</sup> 미니멀 아트는 1960년대 후반부터 미국에서 혼자하게 나타난 동향으로 1965년 영국의 철학자 리하르트 볼하임(R·Wolheim)이 뒤상(Marcel Duchamp), 말레비치(Kazimir Malevich), 라인하트(Ad Reinhardt), 라우젠버그(Robert Rauschenberg)등을 논한【미니멀 아트】라는 논문에서 유래된 용어이다.<sup>8)9)10)</sup> 미니멀이란 '최소의' '극소의'라는 의미로써 일루전의 극소화, 즉 최소한의 조형수단에 의한 작품 제작을 뜻하고 있다.<sup>11)</sup> 이후 미니멀리즘(Minimalism)이라는 단어는 1962년부터 추상표현주의(Abstract Expressionism)의 지배적인 중요성에 대항하는 반작용으로 창작된 작품을 일컫는 의미를 갖게 되었다.<sup>12)13)</sup>

그리하여 미니멀리즘이라는 용어는 변칙적 용례를 통해서 'ABC미술'<sup>14)</sup> '기본구조미술(primary structures)' '차가운 미술(cool art)' '구체적 오브제(specific objects)',<sup>15)</sup> '실재미술(The art of the real)',<sup>16)</sup> 과 같은 뒤늦게 나타난 양식들을 대신했다.<sup>17)</sup>

기본적으로 삼차원 미술의 형식을 취하는 미니멀리즘은 1960년대 후반 미국의 젊은 작가들이 최

소한의 조형수단으로 제작했던 조각이나 회화를 가리키며, 종래의 예술 개념을 거부하는 입장에서 출발하고 있다. 특히 당시 미국 화단의 지배적인 세력이었던 추상표현주의가 초자아를 표현하여 관객에 호소하는 입장을 취했고, 팝 아트(Pop Art)가 문명비판적이고 풍자적인 성격을 띠었던 데 반해, 이들은 엄격하고 비개성적이며 소극적인 화면을 구성하고자 노력했다.<sup>18)19)</sup> 이러한 미학의 개념은 본래 말레비치와 뒤상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미니멀 아트는 극단적인 간결성, 기계적인 엄밀성, 개성적인 성격 등이 장점이자 한계가 되고 있다.

따라서 미니멀리즘은 한편으로는 추상표현주의의 내적 관련이 없는 단일한 전체성(all over)으로 써의 공간과 다른 한편으로는 예술의 자율성, 순수성, 또 예술의 절대자의 혁신으로써의 비예술-물체, 현실이라고 하는 20세기 미술 특유의 예술 개념의 추구와 관련을 가졌다.

미국 문화의 흐름을 긴 관점에서 보자면 미니멀리즘은 랄프왈도 에머슨(Ralph Waldo Emerson)이 말했듯이 민주주의적 정치학과 자본주의적 애심의 충돌이 놓은 '세속적 번창'에 대항하여 일어나는 반항이 주기적으로 일으킨 발작의 한 유형으로 그릴 수 있다.<sup>20)</sup> 미니멀리즘은 현대 미술의 형식적 특질을 통해 굴절된 미국의 단순성과 이상을 구체화하고 있다.<sup>21)</sup>

6) Ibid., p.114.

7) Ibid., p.150.

8) 編輯部, 現代藝術事典, 美術出版社, 1993, p.134.

9) H·W & D·J Janson, 유흥준 역, 회화의 역사, 열화당, 1992, p.262.

10) Kenneth Baker, 김수기 역, 미니멀리즘, 열화당, 1993, p.17.

11) Michael Collins, 한영호 외 역, 현대 디자인의 이해, 기문당, 1992, p.217.

12) Robert Atkins, 現代美術のキーワード, 美術出版社, 1993, p.97.

13) 編輯部, 現代藝術事典, op. cit., p.126.

14) 알파벳을 반복해 놓은 것같은 무미건조한 반복으로 미니멀 아트의 특성을 의미함.

15) 강력한 환원성, 단일성 그리고 새로운 재료 사용과 공업제품들을 수용한 미니멀 아트를 의미함.

16) 미니멀 아트의 성향을 의미함.

17) 김수기, op. cit., p.16.

18) 한영호, op. cit., p.217.

19) Jean-Louis Ferrier, Art of our century, Printice Hall Edition, p.628.

20) 김수기, op. cit., p.11.

21) 전영미, 20세기 실내디자인의 조류, 기문당, 1994, p.154.

미니멀리즘의 사회적 기반은 경제적이고 변덕스러운 저급문화의 미술계였는데, 이같은 저급문화의 경제는 미술과 미술에 관한 견해에 있어서 끝없이 새로움을 재생산하는 일에 의존하고 있었다.

또한 미니멀리즘은 역사주의나 장식주의와 반대의 성격을 띠어 대중의 기호보다 선택된 소수를 위한 수준높은 디자인 감각으로 공간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나치게 장식적이고 주관적인 관점을 지닌 타공간에 비하여 표현의 억제를 지향하고 절제된 형태 표현으로 모든 사물을 ‘마이크로화’하는 예술의 극소화 양상을 띠고 있다.

즉, 미니멀리즘이란 단어에는 기하학적 추상을 극단까지 밀고나감으로써 회화나 조각을 본질적 요소로 환원하려고 한 이러한 동향의 모더니즘적인 목표가 어우러지는 것도 내포되어 있다. 미니멀리즘은 순수하게 미국에서 태어난 미술가들에 의해서 선도되었고 초기에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예술동향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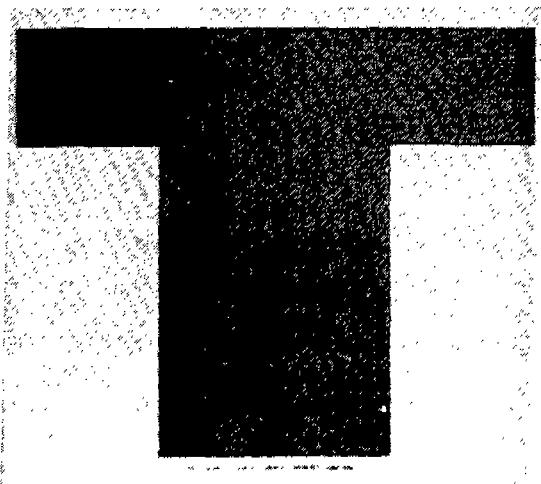
## 2. 미니멀 아트 작가의 작품에 나타난 특성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전반은 미술가들의 지적인 탐구가 행해진 시대로써, 회화는 이미 미니멀 아트에 있어서 하나의 장점에 달해버렸다. 즉 미술가들의 활동은 입체나 performance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였다. 회화의 회화다움이라는 것은 ‘회화가 묘사된 표현이 평활한 면이다’라고 하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매끈하다고 하는 성질(소위 평면성)을 추구하여 화면을 균일하게 동일색으로 도색하는 것 같은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sup>22)</sup> 그리고 평면을 중층적으로 서로 맞추어서 relief상에서 시행하는 것처럼 회화는 평면성이라기 보다도 오히려 그 자체로써 강한 실체성을 가진 회화 이외의 무엇도 아닌 회화로써의 자

립성 확립을 지향하는 것으로써의 위치를 확실히 제시하였다.

ABC 또는 미니멀리즘 작가들에게 있어서 바네트 뉴만(Barnett Newman)이 발표한 ‘회화란 스스로의 독자적인 의미만을 갖는 것으로 여겨야 한다’<sup>23)</sup>라는 의미는 축소적인 미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즉 관람자는 화면을 색면임과 동시에 형태로 받아들여야만 하게 되었다. 1958년부터 이미 스텔라(Flank Stellar)는 【Stripe Painting】(그림 1)에서 회화적 형태를 ‘의미를 표기하는 형태’로 인식하는 새로운 해석을 보여주었다.<sup>24)</sup>

이렇게 미니멀리즘의 기초적 구조의 등장을 미리 예고해 주었던 것은 hard-edge painting의 기계로 채색된 듯한 화면이었다. Hard-edge painting은 단단한 가장자리에 의해 화면이 구분되며, 시원하고 단순한 색깔로 그려진 것이 특징으로 종래의 기하학적 추상에서는 각각 독립된 의미를 가진 몇 가지의 형태가 화면 전체를 구성하기 때문에 전체는 몇 개의 부분으로 분할될 수 있는데 반해 hard-edge는 형태가 화면 전체이기 때문에 분할이 불가능하였다.



(그림 1) Flank Stellar, 텔루드 화합물, 1960~61.

22) 정병관 외, 현대미술의 동향, 미진사, 1989, p.278.

23) 김정화 편저, 20세기 미술의 모험, AP 인터내셔널, 1990, p.20.

24) 정병관, op. cit., pp.289~90.

미니멀 아트의 특징은 화가의 수작업을 감지시키지 않는 균질하고 무표정한 완성과 스텔라가 했던 것처럼 화면에 묘사한 스트라이프 형태에 어울리게 해서 캔버스를 부분적으로 잘라버리고 캔버스 형태를 변할 수 있게 함으로써 shaped canvas라고 불리는 장방형이나 정방형만이 아닌 다양한 캔버스의 사용에 있었다. 이렇게 미니멀 아트는 이론적으로 최초로 工場發注가 가능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되었다. 工場發注할 수 있는 예술이란 완전히 *ad lib*(즉흥적인 대사, 연주) 효과가 없는 예술이란 것이다.<sup>25)</sup>

60년대 후반에는 점차로 입체작품이 주류로 되어가면서 회화 보다도 조각이란 형식과 결부지어지는 것이 많았으며, 미니멀리즘의 조각도 역시 재현적인 이미지나 받침대를 배제하여 때로는 아티스트의 손의 흔적조차 거절하였다.<sup>26)</sup> 단순하고 기하학적인 형체를 가진 공장에서의 전형적인 공업제품처럼 만들어진 그러한 작품은 primary structures라고 불리게 되었다.<sup>27)<sup>28)</sup></sup>

그것은 그 이름대로 기본구조인 입방체나 구체 등을 회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무표정한 단색으로 색을 입힌 조각이다. 그래서 그 형태만으로 완결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조각처럼 대에 올려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덜렁 마루나 땅에 놓여지는 것이다.

즉 미니멀리즘 작가들은 하나의 인식론적 입방체를 도입시켰는데, 이것은 명백함, 개념상의 염격함, 꼼꼼함 그리고 단순성에 대한 전념을 뜻하는 것이었다.<sup>29)</sup> 그들은 예술을 보다 정확하고 염밀하며 체계적인 방법론 쪽으로 대신 방향을 돌리기를 바랐다. 입방체를 무한으로 활용하면서 그들은 완벽한 균형감을 전달하였고, 마치 별들이 그

들의 궤도를 지키는 것처럼—모형으로 정해진 기본 단위들의 단조로움이 어떤 면에서는 자유의 정반대인 것처럼—엄밀하게 구획된 바탕면으로부터 결코 이탈하지 않는 시각적 대칭을 제작했다.

미니멀리즘 작가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유쾌하게 미적 몽상에 몰두하도록 만들기보다는 사람들로 하여금 바닥을 파헤치도록 함과 동시에 미술의 차가운 지각적 사실들에 대면하도록 만듦으로써 이러한 대조적인 면을 제공하려고 애썼다. 여기에서 차갑다는 내면적 의미는 감각, 감정에 호소하기보다는 지성에 호소하므로 무관심과 엄격함, 합리성과 비인격성 그리고 금욕과 같은 성질을 지닌 다양한 형식의 예술적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 은유적인 내용을 가진다. 즉 차가운 미술(cool art)은 날카로운 윤곽이나 형식, 반복적인 구조와 단위로 이루어져 있어서 추상적이고 기하학적이다. 따라서 *hare-edge*, 기본구조미술, 미니멀 아트, 팝 아트까지도 이러한 미술로 분류될 수 있다.<sup>30)</sup>

미니멀리즘의 주도급 실체 작가들은—돈 주드(Don Judd), 댄 플라빈(Dan Flavin), 칼 앤드레(Carl Andre), 로버트 모리스(Robert Morris) 등—모두 궁극적으로 3차원적 물체를 구성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sup>31)<sup>32)</sup></sup>

그들의 성숙한 작품은 공통적인 양식상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은 암도적으로 모든 의미와 은유가 배제된 장방형과 입방적 형태들, 각 부분의 등등성, 반복 그리고 중성적인 표면들이다. 그들의 공통된 야심은 최대의 당면성을 가진 작품들을 창작하여, 그 속에서 전체가 부분들보다 중요하고, 단순한 질서체계의 배합을 위하여 관련적인 구성이 배제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 모든 작가들은 아연도금 철판,

25) 若林直樹, op. cit., p.147.

26) Edward Lucie-Smith, 岡田隆彦外 1人, 現代美術の流れ, PARCO 出版, p.238.

27) 若林直樹, op. cit., p.148.

28) H · W Janson, History of ART, Abrams, 1991, pp.765.

29) Nicos Stangos, 實木範義譯, 20世紀美術, PARCO出版, 1985, p.2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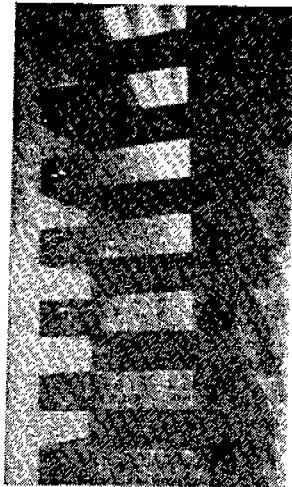
30) 김수기, op. cit., p.25.

31) Tom Wolfe, 박순철 역, 현대미술의 상실, 열화당, 1994. p.107.

32) 岡田隆彦外 1人, op. cit., p.247.

냉각아연 강철, 형광등, 내화(耐火)벽돌, 스티로폼 입장체, 동판, 공업용 페인트 등과 같은 산업용 재료들을 그 특수성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가능 한한 종합적으로 사용하는데 열심이었다.<sup>33)34)35)</sup>

그리고 그들 모두가 하나의 단순한 형태로 써 있는 그대로든지, 또는 일련의 반복되는 동일한 기본 단위들로 써든지, 단순하고 획일적이며 기하학적 인 형상들을 선호했다.



(그림 2) Donald Judd, 무제, 1972.

미니멀리즘 조각가들은 오래된 형체를 재이용 하기 보다는 새로운 형체를 창조해 내고 싶다는 이상으로 움직여 예술과 일상세계의 경계에 걸쳐 지는 듯한 작품을 만드는 것에 의해서 단지 예술 작품을 초월한 것을 탄생시키고자 원하였다. Judd 와 Morris가 그 주요 논쟁자들이었고, 그들은 수 많은 기사들을 써서 새로운 심미적 감각을 살살이 분석하였으며 자신의 작품들이 이해되어 지기를 바라는 방식을 지시하였다. Morris는 합판으로 사다리꼴을 만들어 회색으로 채색해서는 자신의 순

33) Jean-Louis Ferrier, op. cit., p.628.

34) 實木範義譯, op. cit., p.251.

35) 現代藝術事典, op. cit., p.60.

36) H · H Arnason, 이영철외 역, 현대미술의 역사, 인터내셔널 아트 디자인, 1991, p.578.

37) 편집부 편, 현대미술가 인명사전, 열화당, 1989. pp.88~9.

38) Robert Atkins, 박진선 역, 현대미술의 개념풀이, 시공사, 1994, p.96.

수한 존재 외에는 다른 정보라고는 전달하지 않는 작품을 발표하였고, Judd는 차가운 느낌을 주는 재료로 만든 사각형을 늘어 놓아 절대적인 객관성을 모색하였다.<sup>36)37)</sup> (그림 2) (그림 3)



(그림 3) Robert Morris, 무제, 1970.

Judd의 쌓여있는 상자들은 기반적으로 단순하고 날렵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그것들은 조각제작의 방식을 재정의하려는 그의 야심을 성공적으로 달성시켜 준 것이다. 그 재정의에 있어서 결정적인 것은 형태들이 모형화되거나 각이거나 용접된 것이라기 보다는 집합되었다는 사실에 있었다.

Morris의 상자같은 입방체나 Judd의 선반처럼 늘어선 평판은 동시대의 국제적 스타일의 건축 및 근대 후기의 인테리어 디자인과 같은 기하학적인 형체와 곧잘 유사하였다.<sup>38)</sup> 즉 Morris는 손이 미칠 수 있는 공간에 걸쳐 완벽한 질서적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이상의 나머지 공간은 관객들 스스로 채우도록 남겨두고 있다. 그리하여 아

티스트들은 그들의 작품이 도시환경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했지만, 일반 사람들은 대체로 그들의 작품을 가까이 하기는 어렵다는 것으로 느꼈다.

미니멀리즘의 고정된 형태들은 생태계에 대한 강압적인 부정이고 순환적이고, 탁상공론적인 것 이자 기계적인 것으로 자기 창조적이고 권위주의 적이라고 비난을 받았다.<sup>39)</sup>

그러나 미니멀리즘 화가들은 재현(representation)적인 이미지나 공간의 회화적 Illusion을 배제하여 균질화된 단일 이미지를 선호해서 묘사해 냈다.<sup>40)</sup> 그래서 점차 보다 작은 부분의 격자를 기본으로한 병렬에 의해서 화면을 구성했다. 이처럼 수학적으로 규칙이 바른 구도를 지향하는 것에도 관계없이 미니멀리즘 회화 작품은 폭넓게 변화해서 풍요로워졌다.

즉 미니멀리즘 작가들의 작품 특성은 예를 들면 이미지의 문학적 의미 내지 심리학적 의미와 같은 미술 대상의 ‘내부’ 보다는 미술 대상의 물리적 배경이나 관찰자의 반응이라는 미술 대상 외부에 내용을 두는 경향이 있다. 미니멀리스트의 미술은 역사의 파괴와 인간의 참해와 인간의 망각에 반하는 미적 가치의 범위를 보존하는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미술과 미적가치의 의미를 단순히 개인의 것이 아닌 사회적 질서의 창조물로 보게 하는 미술의 힘을 통해서 증명하였다.

### III. 1960년대 패션과 미니멀 아트

1960년대의 패션은 그 당시 미술세계의 흐름과 마찬가지로 그전까지와는 달리 새로운 양상으로 표출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에 들어와서는 기성복 산업의 발달과 함께 패션은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하게 되었는데, 패션의 주류는 보다 활동적이고 단순한 스타일로 1920년대를 지배했던 샤넬의 수트나 플래퍼 스타일(flapper style), 또는 가르손느 스타일(garconne style) 등이 다시 유행했다. 이들은 단순함과 실용성을 기본으로 하였기 때문에 젊은층의 생활감각에 잘 맞았다.<sup>41)</sup>

특히 이 때의 패션 경향은 신체와는 거리가 먼 모습이 여러가지 경향으로 변화가 되었다. 모든 것중에서 가장 주목될만한 것은 1965년부터 선보여졌던, 즉 추상화처럼 눈에 띄었던 미니 스커트(mini skirt)였다. 이 스타일은 영국의 여성 디자이너인 Mary Quant가 short skirt dress를 발표하여 Young Fashion으로써 유행하였다. 그것은 특히 뉴욕의 젊은이들에게 의해서 인기를 얻었으며 점차 파리의 Haute Couture 디자이너들에 의해서 미니길이의 의복으로써 발표되었다.<sup>42)43)</sup> 1965년 이래 미니는 폭발적인 인기를 차지하며 전 세계를 풍미하였고 무릎위 7~20cm까지 상승해 갔다. 유행의 피크는 1968년으로 무릎위 15~20cm가 보통이었으며, 더욱더 짧아진 것은 초미니 스타일(허벅지까지 올라오는)로써 ultramini라고 불렸다.<sup>44)</sup>

이러한 초미니 스타일의 유행은 패션계가 상층 계급의 소수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했던 시대에서 대중속으로, 게다가 젊은 사람들을 사이로 침투했다는 것을 의미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과거의 패션 어디에서도 공통 동기를 찾을 수 없었으며, 그것은 완전한 젊음의 주장이었다. 패션의 자연스러운 변화가 인정되었고 신념에 찬 추종자들에게 있어서는 거의 삶의 한 방식이 되었다. 1966년부터 60년대 말까지 그것은 모든 스커트를 무릎위치까지 올려 놓았다. 또 미니스커

39) Nicos Stangos, op. cit., p.253.

40) 現代美術のキーワード, op. cit., p.97.

41) 정홍숙, 복식문화사, 교문사, 1981, p.308.

42) 丹野 郁編, 総合服飾史事典, 雄山閣, 1980, p.148.

43) Elizabeth Ewing, History of 20th's century Fashion, Batsford Books, 1986, pp.178~9.

44) 文化出版局, 服飾事典, 1990, p.867.

트의 허리선의 위치는 lowwaist로서 차츰 hip-bonne belt가 착용되었으며, hip hanger, hip hugger로도 불렸다.<sup>45)</sup> 그리고 모든 연령의 여성들이 바지위에 튜닉을 입는 스타일로도 파생되어 후에는 이중 용도의 의류로 팔렸다.

유행을 쫓는 여성과 부유층 여성들은 이러한 직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고 있었으며, 억세면서도 멜시있는 디자인에서 다분히 원통같은 느낌을 표현함으로써 1920년대 대스타일을 회상하게 하는 유행을 이끌어 가는데 선두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 혁명적 디자이너는 자신의 디자인에 거의 전축학적인 윤곽을 창조했던 Andre Courreges였다.<sup>46)47)</sup> 사람들이 최초의 미니의 창작과 더불어 런던의 Mary Quant를 신용하고 있었던 반면, 중심적인 유행에로의 시선을 촉발시켰던 것은 분명히 Courreges였는데, 그는 1965년 춘하 파리 클렉션에서 미니 스타일을 채용하여 명성을 얻었다. 즉 1960년대의 미니는 그 당시 진행되던 패션 혁명의 일부분으로써, 세계의 젊은이들에게 수용되어졌던 사회적 가치에 대한 태도 및 공격성을 반영했다.

미니 스커트가 출현한 이후, 복식사에 새로운 단계가 야기되었다. 그것은 새로운 양식의 출현이며 복식 전반에 걸쳐서 변화가 요구되었다. 좁은 high heel의 뒤축을 넓게 하고, 부츠를 도입하는 등 구두의 형태를 변화시키기도 했다. 그래서 소위 패션산업이라고 하는 사회적 분업의 일환이 크게 부각 되었으며, 또 수공업적·공예적 숙련자의 가치가 높아졌지만 이러한 현상은 이미 보았듯이 【기계가 초래한 적절적인 결과】였다.<sup>48)</sup>

또한 Young Fashion에 의한 변화 중 가장 널리 퍼진 것은 스타킹에서 타이즈로의 변환이었다. 스

타킹은 곧 필요와 장식적인 면에서 폐배를 하고 타이즈가 점점 더 많이 보급되기 시작했다.<sup>49)</sup>

스타킹 멜방이 보이고 허벅지가 들어나는 스타일은 쟁쟁춤을 추는 소녀들에게 인기가 있었다. 그러나 타이즈로 인해 메인카운터에서 스타킹은 밀려나고 여자들은 스커트 길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타이즈를 신었으며, 편안함과 함께 더 멋지다는 것을 알았다. 거들과 콜셋 역시 팬티 거들이나 팬티 콜셋으로 확장되는 변화가 진행되었다.

Mary Quant는 이러한 유행이 진행된 아래로 금속뿐 아니라 레이스와 망사를 이용해 다양한 패턴을 만들어서 타이즈를 디자인했다.<sup>50)</sup>

1966년 이후에는 의생활이 더 한층 복잡하고 다양해졌다. 여러가지 특이한 합성섬유, 유리, 금속, 인조가죽, 그리고 몸이 그대로 비쳐보이는 반투명(see-through fabric)이 나오는 등, 의복재료는 나날이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sup>51)</sup>

그리고 1960년대는 파리를 중심으로 영국, 미국에서 젊고 유능한 디자이너가 속출하였다. 그 중에서도 파리의 Haute Couture 디자이너 작품은 풍부한 창조성과 뛰어난 감각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며, 그들의 작품은 복식사 속에서 영원히 기록되어 남게 되었다.

몇개의 디자이너 작품과 당시의 패션 경향을 살펴보면, 1965년 Yves Saint Laurent은 Modern Art를 의상 디자인과 연결지었다. 그것은 네덜란드의 대표적 추상화가인 몬드리안(Piet Mondrian)의 회화 구성을 도입했던 디자인으로 그 참신성은 당시의 인기를 모았다. 66년 Pierre Cardin은 Pop Art가 주장한 【일상적 주제】를 의복의 문양이나 배색에 응용하여 젊은 사람들에게 주목받았다.

아폴로우주선이 발사되었던 즈음에 Cardin은

45) Ibid., p.867.

46) 丹野 郁編, op. cit., p.149.

47) Maggie Perton Murray, *Changing Styles in Fashion*, Fairchild, 1990. p.112.

48) 原田二朗, テザイナーのための 西洋服裝史, 源流社, 昭和 58年, p.241.

49) Maggie Perton Murray, op. cit., p.114.

50) Elizabeth Ewing, op. cit., p.183.

51) 정홍숙, op. cit., p.309.

계속해서 새로운 작품을 발표했다. 미니 선풍의 기수였던 Andre Courreges는 기하학 라인을 추구하여 단순한 型體에 신선한 장식, 예를 들면 폭넓은 스티치로써 명쾌하게 단추 배열을 하는 것 등으로 젊은이가 선호하는 약동감을 작품상에 멋지게 표현했다. 그래도 시대에 부응한 대량생산이 가능했던 디자인으로 호평받았다. 더욱이 66년의 복식계는 다종다양한 변화가 풍부했던 해였다. 미니의 진원지였던 런던을 중심으로 Mods(Modern Jazz를 좋아하는 젊은이들의 애칭) look이 탄생했다.<sup>52)</sup> 이것은 지금까지의 룰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유로운 치장으로써 남녀 구별없이 선택된 소재나 무늬, 형에 의한 스타일이었다.

이렇게 60년대에는 패션에 있어서나 일반디자인 전반에 있어서도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었으며, 고도 경제 성장기를 맞아 예술이나 풍속이 변화와 비약이 거듭된 시대였다. 한편 이 시대에는 뉴욕이나 런던 등의 국제적 도시들은 동시대적 감각을 공유하기 시작했던 시대로 미니 스커트 등 참신하고 특징적인 패션이 수없이 탄생하여 전세계적으로 젊은이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즉 67년경 미국을 중심으로 탄생했던 것이 Hippie style로써 과학문명이 발전했던 시대에 도전하여 그들의 치장은 직접 만든 의복, 얼룩지게 마무리한 목면, 재단하지 않은 가죽을 연결시킨 스커트, 그리고 자연스럽게 내려뜨려진 긴 머리에 액센트를 준 헤어 밴드 등, 자유로운 생활의 추구를 의복하고 표현했다.

1965년 이후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던 복식계도 70년경부터 전혀 다른 경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생활속에 정착되었다고 여겨졌던 미니길이의 의복은 70년대에는 소멸했다. 그리고 이미 복식계에 특수한 풍속으로 등장했던 Mods style, Hippie style, Unisex 등의 감각이 경제기의 패션계로 몰입해 갔던 것이다. 디자이너들은 그러한 치장에서

새로운 영감을 얻어 다양한 복장을 선보이기 시작했다. 복식계는 미니 스커트를 탈피하고 Hippie가 착용한 롱스커트를 착용하였으며, 롱스커트에 저항감을 느낀 사람은 mimollet(주로 여성복의 길이가 종아리 중간까지 오는 것을 말함), midi스커트를 몸에 걸쳤다.<sup>53)</sup> 스커트 길이 하나를 보아도 패션계는 다양화 되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미 모드에는 한줄기의 통일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현대 패션계 또는 모드계는 역사복의 재현, 민족복의 재현, 생활양식의 변화에서 얻어지는 치장과 동일한 모드에서 생긴 디자인 변화 등이 패션산업의 발달에 의해서 가능해졌다.

새로운 양식의 출현이라고 하는 것은 선행하는 양식에 대한 비판으로써 나타난 것이며, 새로운 양식을 창출해 내는 유행은 소위 생산적인 유행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의 의복 흐름을 보면 고대나 중세와는 달리 사회구성체 차이에 의한 의복의 변화가 없는 현상은 자본주의 사회와 사회주의 사회에 있어서 의복의 동일성을 보면 분명하게 느낄 수 있지만, 의복 변화의 방향의 예측을 곤란하게 하고 있다.

1960년대 패션의 흐름을 보면, 미니멀 아트에 내재되어 있는 조형성을 실루엣이나 소재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표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젊음에 대한 열망이 강했던 60년대의 사회분위기는 라이크라 등의 가볍고 신축성 있는 소재를 이용해 의복을 피부에 딸착시킴으로써 인체를 그대로 드러내는 자유롭고 경쾌한 복식을 시도하기도 하였는데, 이것은 자연스러운 인체미를 중시하고자 하는 복식의 순수성의 추구가 인체 자체를 소재로 받아들여 인체의 본질을 추구하고자 하는 인체의 순수성 추구로 이어졌음을 의미했음이 선행연구<sup>54)</sup>에서도 제시되었다.

미니멀 아트의 조각이나 회화들은 강한 기하학적 밀침대, 강렬한 산업적 색채 그리고 기본적인

52) 丹野 郁編, op. cit., p.183.

53) Ibid., p.151.

54) 김온덕, op. cit., p.35.

형태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내면적인 조형성은 Mary Quant나 Andre Courreges의 의상 디자인에 그대로 표현되고 있다. 즉 Courreges는 특히 건축학적인 윤곽을 의상 디자인으로 창조시킴으로써 당시의 조형예술 분야와 동일한 맥을 공유했음을 느낄 수 있다. 또한 당시 활약했던 패션 디자이너인 Y·S·Laurent이나 Cardin의 의상 작품에서도 예술양식의 조형성이 의상의 실루엣이나 문양, 배색 등에 응용되어 60년대를 장식하였다.

마찬가지로 60년대 이전과는 이질적인 이미지를 가졌던 미니멀 아트의 예술적 배경에 함축되어 있던 조형성은 의상의 다양한 소재를 통해서도 색다른 감각으로 도입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그 시기의 의상 작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여러 조형예술에서 표출되고 있는 예술적 감각은 서로 동일하게 도입이 되어 풍부한 창조성을 지닌 작품으로 표현되어 왔던 것은 그동안의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해 주었다. 역시 미니멀 아트라는 예술 양식은 미술분야 작품에서 표현되었던 조형성이 당시의 패션 디자인에도 응용되어 새로운 유행으로 60년대를 풍미했음을 알 수 있다.

#### IV. 1990년대 패션과 미니멀 아트의 조형성

Ⅲ장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미니멀 아트의 조형성은 그 예술양식이 변성하였던 당시의 패션 디자인 작품에도 그대로 표출되고 있음을 고찰할 수 있었다. 그러면 IV장에서는 과거의 예술양식의 조형성이 다채롭게 표출되고 있는 1990년대의 패션 디자인에서는 어떠한 요소로써 미니멀 아트가 가지고 있는 내면적인 특성이 표현되고 있는지에 대

해서 세계적인 디자이너의 의상 작품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동안 인류의 생존환경에 대한 우려를 패션으로 표현함으로써 세계 패션 시장을 5~6년간 지배해 온 에코로지룩(ecology look)이 뇌조기미를 보이면서, 20세기 말 패션의 흐름은 한가지 유형에 지배되지 않고 다원적인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컴퓨터 시대의 고객층은 패션디자이너의 의도에 맹목적으로 충종하지도 않는다.

1980년대에는 뉴욕의 건축가 출신 디자이너인 졸란 등에 의해서 디자인과 테크닉을 극한까지 생략한 심플한 스타일을 발표함으로써 의상의 원점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를 제공하였다.<sup>55)</sup>

1990년대 패션에 있어서 미니멀 아트의 조형성은 형태가 변형되어 나타나는 과장된 장식을 피하고 소재의 질감이 그대로 들어나는 심플한 디자인을 취하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1990년대 후반에 나타나고 있는 일련의 레트로 패션은 1960년대 스타일의 재해석으로 보고 있다.<sup>56)</sup> 이러한 흐름은 단정하고 깔끔한 라인, 기하학적인 그래픽 패턴, 그리고 다이나믹한 심볼을 강조한 T-shirts 등으로 표현되었다.

또한 복식에 있어서 최소표현 기법을 적용한 조형적 단순성을 디자인 요소인 선, 형, 색채, 재질 등의 최소화와 제작과정의 선택 등을 통하여 표현되고 있음은 선행연구<sup>57)</sup>를 통해서도 명백하게 고찰이 되었다.

미니멀 아트의 조형성을 패션 디자인으로 표현한 대표적인 디자이너인 Donna Karan은 이미지 그대로 심플하고 현대적인 모습을 소재에 접목시켜 자신의 실루엣을 표현하고 있다. 그녀는 편안하고 활동적이며, 여성의 완벽한 몸매를 요구하기보다는 옷을 착용함으로써 여성의 체형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실루엣을 만들어 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58)</sup>(그림 4)

55) 김종복, *Fashion word collection 1*, 시대출판, 1993. p.16.

56) *Fashion Today* 1995년 12월, p.149.

57) 김온덕, *op. cit.*, p.27.

58) 정은숙, *도나 카란의 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 복식 26호, p.271.



(그림 4) Donna Karan, Collezioni, '95A/W



(그림 6) Ally Capellino, Collezioni, '95A/W

그러한 예술 양식의 조형성 중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작품에 응용되는 소재라고 볼 수 있다. 자연스러운 인체미의 추구를 위해 니트 등의 소재를 이용하여 단순한 이미지의 조형성을 표현했던 반면, 조각 작품에도 아연 도금칠판이나 냉각 아연강철, 그리고 동판, 공업용 페인트 등과 같은 산업용 재료들을 이용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의상에 있어서도 하이테크적인 합성소재, 메탈 분위기의 광택 소재, 고무 및 라텍스, 플라스틱, 비치는 비닐 소재 등이 이용되고 있다.<sup>59)</sup>(그림 5~7)



(그림 5) Red or Dead, Collezioni, '95A/W



(그림 7) Thierry Mugler, MODAIN, 1994.

현대에서 이러한 소재 이용에 대한 경우를 미니멀 아트의 조형적 특징에서 살펴본다면, 하나의 소재를 단순한 형태로써 있는 그대로든지, 일련의 반복되는 동일한 기본 단위들로써 이용하든지 또는 단순하고 획일적이며 기하학적인 형상들로써

9) Fashion Today 1995년 12월, p.149.

이용했던 미니멀 아트의 조형성을 이들 의상 작품을 통해서도 그 맥을 같이 할 수 있다.

Fendi의 경우도 베이직하고 편안한 실루엣으로 실용성을 가미한 작품을 발표함으로써 90년대에 재조명되고 있는 미니멀 아트의 조형성을 보이고 있다. (그림 8)



(그림 8) Fendi, Collezioni, '96S/S

즉 소재의 느낌과 간결한 재단 등에서 현대 의상의 본질적인 부분을 중요시한 이 의상은 단순함으로 인해 흐트러지지 않는 순수한 개성을 둘보이게 하는 조형적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는 방수소재의 스타일 즉 스포츠복을 변형한 디자인을 제시하였던 Rifat Ozbek 역시 기본적인 실루엣으로 단순하고 활동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의상을 통하여 표현함으로써 60년대 예술양식의 흐름이 부활되어 새롭게 표출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림 9) 초미니 원피스 드레스에서 최소한의 표현으로 인체의 선을 자연스럽게 보임으로써 단순하고 간결한 이미지를 보이고 있다.



(그림 9) Rifat Ozbek, Collezioni, '96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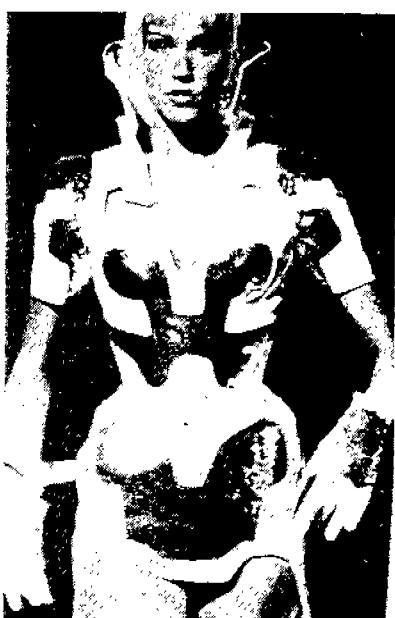
즉 그림 9와 같이 장식적인 측면을 배제하고 가장 기본적인 옷의 형태를 추구하는 경향인 미니멀 아트의 조형성은 저널리즘이나 비평가 그룹에 의하여 차세대 이데올로기로 떠오를 가능성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주목을 받기도 한다.<sup>60)</sup>

조각상을 연상하는 실루엣의 의상을 지향하여 60년대를 풍미한 패션 디자이너인 Courreges 스타일은 Thierry Mugler의 1994년의 작품을 통해서도 그 내면적인 공감대를 읊미할 수 있다. (그림 10) 일반적으로 Courreges의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아 재창조되는 디자인은 기능성 보다는 디자인에서의 액센트로써 나타나는데, 특히 디테일에서의 기하학적인 효과는 미니멀 아트의 조형성을 그대로 담아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선에 의한 최소표현은 인체를 따라 흐르는 완만한 곡선으로 이루어진 실루엣이나 직선·사선 등 단순한 기하학적 실루엣과 내부구조선의 절제를 의미한다고 제시한 선행연구<sup>61)</sup>와도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60) 동아일보, 1995년 9월 8일.

61) 김은덕, op. cit., p.70.



(그림 10) Thierry Mugler, MODAIN, 1994.

Judd의 조각 작품에서 보여지는 단순함, 최소한의 조형수단을 이용해서 구성한 형태에서처럼 Danny Wise의 의상 작품인 그림 11은 Judd의 작품에서 느껴지는 단순함과 기하학적인 실루엣을 볼 수 있다. (그림 11)



(그림 11) Danny Wise, Harper's Bazaar, Italy, 1994. 9.

90년대 모드의 특징은 최근의 소재산업의 발달로 인하여 더욱더 패션 디자인에서 그 조형성의 표현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소재 자체의 다양성 또한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고 내적 의미 자체를 바꾸게 함으로써, 미니멀 아트의 내면성과도 공유되어 있음을 고찰할 수 있다.

이렇게 소재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면서 이러한 다채로운 소재로 의상이 제작될 경우, 디자인의 이미지를 강하게 부각시킬 수 있는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림 12)



(그림 12) Paco Rabanne, MODAIN, 1994.

즉 소재가 강하게 부각됨으로써 방수나 비닐 소재 등으로 활동성이 우선시되는 단순하고 스포티한 스타일,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첨단 스타일이 20세기 후반의 유행흐름을 주도하면서 감성보다는 지성에 호소하는 미니멀 아트의 성격을 표출해내고 있는 것이다. (그림 13)

미니멀리즘 작가들은 전통적 형태를 재사용하기 보다는 새로운 형태를 창조하려는 이상을 가지고 미술과 일상세계의 경계에 걸쳐 있는 3차원적 작품을 제작함으로써 단지 미술작품을 제작한다

는 한계를 넘어서고자 하였다. 마찬가지고 현대 의상에서도 기존의 전통적인 이미지를 벗어난 소재나 실루엣을 통하여 미니멀리즘의 단순하고 기하학적인 조형성이 표현되고 있다.



(그림 13) Chanel, Collezioni, '96S/S

그 동안의 많은 선행 연구에서도 고찰되었듯이 패션 디자인을 통해서 예술양식이 조명되어 나타나는 것은 인간의 정신적인 문제가 두드러지게 모든 조형 예술에서 표출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환경오염이나 지나치게 빠르게 변화해 가는 문명사회에 대한 위기의식 등은 패션 디자인의 조형성으로 도입이 되어 인체에 대해 가장 기본적이고 간결한 실루엣으로 표출되고 소재 또한 참신하고 미래적인 취향으로 수용되고 있다.

## V. 결 론

21세기로 향해서 나아가는 현대인은 물질문명의 홍수 속에서 겪는 내적 갈등으로 인해 육체적인 보호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보호까지도 갈망하여 인간과 자연과의 조화라든가 인간미의 추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대인의 모습은 당시의 다양한 디자인 분야를 통하여 표출이 되고 있으며, 그 중 1990년대 후반의 패션 디자인의 경향을 볼 때, 1960년대의 영향을 받아서 기본적인 단순함과 모던한 스타일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60년대는 조형예술 양식에 있어서 많은 표현 모델을 함축시켰던 시대였으며, 수많은 이질적 시고로 가득찼던 시대였다. 그 시기의 대표적 예술 양식인 미니멀 아트는 미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배경으로 미국에서 태어난 미술가들에 의해 선도되었던 예술 동향이었다. 종래의 예술 개념을 거부했던 미니멀 아트의 극단적인 간결성, 기계적인 염밀성과 개성적인 성격 등의 특징을 지녔으며, 작가들은 작품을 통해서 예술을 보다 정확하고 염밀하며 체계적인 모든 사물을 '마이크로화'하는 예술의 극소화 양상을 띠었던 것이다.

이러한 미니멀 아트의 조형성은 당시 60년대의 패션 디자인에서는 물론, 1990년대의 패션 디자인에서도 도입이 되어 나타나고 있다.

60년대 패션의 경우, 미니멀 아트에 내재되어 있는 조형성이 의상의 실루엣이나 소재 등 여러 부분에서 표출이 되었는데 특히 Mary Quant의 미니 스커트 디자인이나 Andre Courreges의 건축학적인 디자인을 통해서 그대로 표현되고 있다. 또한 당시의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의 의상 작품에서도 예술 양식의 조형성이 의상의 실루엣이나 문양, 배색 등에 응용되었다.

1990년대에는 패션의 흐름이 한가지 유형에 지배되지 않고 다원적인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미니멀 아트의 조형성이 패션 디자인에서는 과장된 장식을 피하고 소재의 질감이 그대로 드러나는 단순한 디자인으로 응용되어 나타났다.

특히 미니멀 아트의 조형성은 소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의상의 소재로써 이용되는 재료들이 기존의 사고방식에서 탈피한 다채로운 소재의 활용에 있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일이었다.

즉 소재가 강하게 부각됨으로써 방수나 비닐 소재 등으로 단순하고 스포티한 스타일,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첨단 스타일이 20세기 후반의 유행흐름을 이끌어 나가면서 미니멀 아트의 성격을 표출해내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환경오염이나 지나치게 빠르게 변화해 가는 문명사회에 대한 위기의식 등은 패션 디자인의 조형성으로 도입이 되어 인체에 대해 가장 기본적이고 간결한 실루엣으로 표출되고 소재 또한 참신하고 미래적인 취향으로 수용되고 있다.

### 참고문헌

- 1) Kenneth Baker, 김수기 역, 미니멀리즘, 열화당, 1993.
- 2) Robert Atkins, 박진선 역, 현대미술의 개념풀이, 시공사, 1994.
- 3) 편집부 편, 현대미술가 인명사전, 열화당, 1989.
- 4) Tom Wolfe, 박순철 역, 현대미술의 상실, 열화당, 1994.
- 5) H · W & D · J Janson, 유홍준 역, 회화의 역사, 열화당, 1992.
- 6) 정병관 외, 현대미술의 동향, 미진사, 1989.
- 7) 전영미, 20세기 실내디자인의 조류, 기문당, 1994.
- 8) Michael Collins, 한영호외 역, 현대 디자인의 이해, 기문당, 1992.
- 9) H · H Arnason, 이영철외 역, 현대미술의 역사, 인터내셔널 아트 디자인, 1991.
- 10) 김정화 편저, 20세기 미술의 모험, AP 인터내셔널, 1990.
- 11) 김종복, Fashion word collection, 시대출판, 1993.
- 12) H · W Janson, History of ART, Abrams, 1991.
- 13) Jean-Louis Ferrier, Art of our century, Prentice Hall Edition.
- 14) 美術手帖編輯部, 現代美術, 美術出版社, 1990.
- 15) 海野弘外 1人, 現代美術, 新曜社, 1995.
- 16) Robert Atkins, 現代美術のキーワード, 美術出版社, 1993.
- 17) 編輯部, 現代藝術事典, 美術出版社, 1993.
- 18) Edward Lucie-Smith, 岡田隆彦外 1人, 現代美術の流れ, PARCO 出版.
- 19) 若林直樹, 現代美術 · 入門, JICO 出版, 1993.
- 20) Nicos Stangos, 賀木範義 譯, 20世紀美術, PARCO 出版, 1985.
- 21) 정홍숙, 복식문화사, 교문사, 1981.
- 22) 丹野 郁編, 總合服飾史事典, 雄山閣, 1980.
- 23) 文化出版局, 服飾事典, 1990.
- 24) 原田二朗, テザイナーのための 西洋服裝史, 源流社, 昭和 58年.
- 25) Maggie Perton Murray, Changing Styles in Fashion, Fairchild, 1990.
- 26) Elizabeth Ewing, History of 20th's century Fashion, Batsford Books, 1986.
- 27) 김민자, 1960년 팝아트의 사조와 패션, 한국의 류학회지, 10(1), 1986.
- 28) 김은덕, 현대패션에 나타난 최소표현기법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95. 2
- 29) 김창규, 조각에 있어서 minimalism 연구, 홍대 석사논문, 1986.
- 30) 하민수, 미니멀리즘의 의미와 그 특성에 관한 연구, 홍대 석사논문, 1986.
- 31) 정은숙, 도나 카란의 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 복식 26호.
- 32) 동아일보, 1995년 9월 8일
- 33) Fashion Today 1995년 12월
- 34) Fashion Today 1996년 1월
- 35) Fashion Today 1996년 2월
- 36) Collezioni 95's a/w
- 37) Collezioni 96's s/s
- 38) Harper's Bazaar, Italy, 1994.
- 39) MODAIN, 1994.

## ABSTRACT

### A Study on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the Minimal Art represented in the second half 20th century fash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Minimal Art represented in the second half 20th century fashion.

All the mode of dress worn this century have developed from the stimulus of a changing society, fired by new discoveries and a zest for the new and different. It would appear that even more dramatic change will soon occur in our clothing styles, the effects of which will be farreaching.

Many of today's styles intended to dress our psyche rather than our bodies and this if fully understood by the new designers, whose influence will become increasingly more potent as we approach the new century.

The highly developed material civilization resulted in human alienations, environmental disruption. By this fact, human being of the 20th century was to overcome social complexity.

Accordingly, their search for simplicity was interested in the 60's style. Especially,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the 60's style was represented in the second half 20th century fashion.

In this paper, it was focused that how the characteristics of the Minimal Art was expressed in the second half 20th century fashion.

Minimalism was a quest for basic elements representing the fundamental esthetic values of art, without regard to issues of content. At its most extreme, it reduced art not to an eternal essence but to an arid simplicity. "Primary Structure", the most suitable name suggested for this type, conveys its two salient characteristics : extreme simplicity of shapes and a kinship with architecture.

Minimalist works are characterized by huge dimensions, coldness, and absolute aesthetic neutrality. Minimalist artists ambition is to define, through the most rudimentary materials, such as plywood, galvanized iron, aluminum, plastic, and wood, a new order of the space. The environment is just as important as the object itself.

Similary, the use of new, tough materials, such as vinyl, metal and plastic, at late half of the 20th century fashion related to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the Minimal Art. And the style of 20th fashion was holded the internal meanings in common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the Minimal Art through the various texture, pattern, silhouette etc.